

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정오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입니다.
-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으며,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목적과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다)에서 비판하고 있는 여성교육과 비교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가 추구하는 여성상을 비판하시오.

제시문 (가)

탁타의 직업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가 심은 나무를 보면 간혹 옮겨 심어도 살지 않는 것이 없었고, 무성히 잘 자라서 빨리 열매가 많이 열렸다. 나무 심는 다른 자들이 비록 몰래 엿보고 모방하여도 같게 할 수는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탁타가 대답하였다.

“내가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천성을 잘 따라 그 본성을 다하게 하기 때문이죠. 모든 나무의 본성은, 그 뿌리가 뻗어 나가기를 바라고, 그 북돋움은 고르기를 바라며, 그 흙은 본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그 다짐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을 살펴서 심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건드려도 안 되며 걱정하지도 말고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을 돌보듯 하고, 심고 나서는 가만히 놓아두면 그 천성이 온전해지고 그 본성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자람을 방해하지 않을 따름이지 내가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 맺음을 억제하고 감소시키지 않을 따름이지, 열매를 일찍 많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시문 (나)

굽은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썬서 바로잡은 뒤에야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야야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는 뒤에야야 다스려진다. 옛날 성왕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고 바르지 않으며,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인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되고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행동하는 데 안주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을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이 하려하며, 수고로우면 쉬려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감정과 본성인 것이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어른을 보면 감히 먼저 먹지 않는 것은 사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수고로우면서도 감히 쉬려고 들지 않는 것은 대신 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본성에 반대되고 감정에 어긋난다. 그렇지만 이는 효자의 도리요, 예의의 형식적 수식인 것이다.

\*도지개: 틈이 가거나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

제시문 (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출생의 드라마는 물론, 이유\*의 드라마도 남녀 유아에게 모두 똑같이 전개된다. 열두 살까지는 여자아이도 남자 형제들 못지않게 튼튼하며, 결코 뒤지지 않는 지적 능력을 나타낸다. 여자아이들이 남자 형제들과 경쟁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다. ‘여성다운’여자의 본질적 특질로 불리는 수동성은 교육자들이나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이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획하고 창조하고 감행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재하는 그 자신 역시 시험을 받는다. 자기의 남성다움에 의문을 던지며, 그 결과 어른과 친구에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을 품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투기\*\*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 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유(離乳):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그만 먹게 됨 \*\*투기(投企):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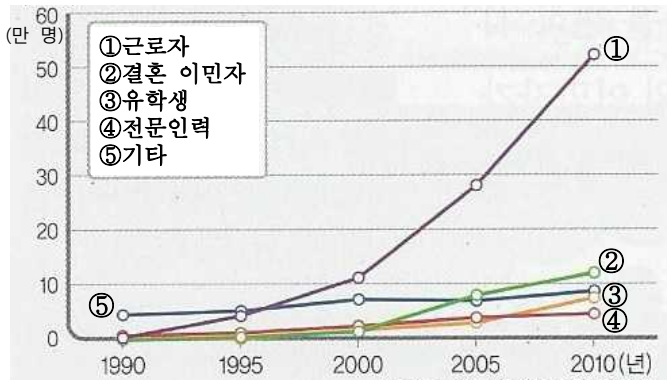
지금까지 모든 여성은 ‘여성답고’, 모든 남성은 ‘남성다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던 고정 관념과는 달리, ‘양성성’(兩性性)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적이라고 규정지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과 남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생리적으로 보면, 남녀는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녀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이 두 호르몬 사이의 균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개인의 내부에 공존해 있다. 심리학자 벵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둘 사이의 균형의 정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초기에는 양성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고정 관념을 창출해낸다는 지적과 함께 양성성의 속성은 달리 규정되고 있다. 즉, 양성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다양한 반응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적 특성만 혹은 여성적 특성만 지니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두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극에 대하여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곧 사회적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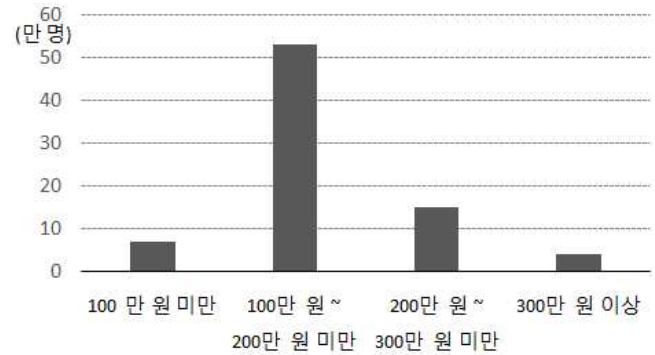
[문항 2]

다음에 제시한 도표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입과 관련해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그림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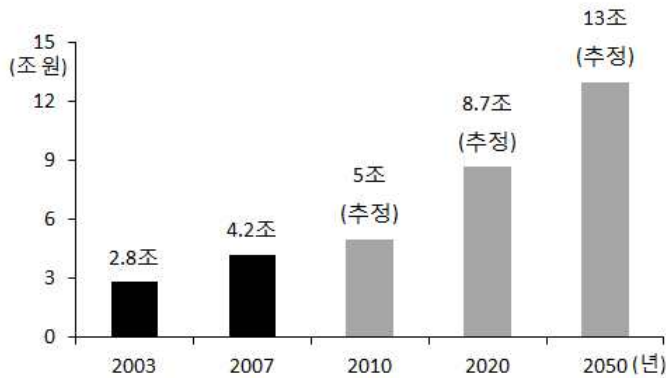


[그림2] 외국인 근로자 임금 현황 (2012년)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원임.  
\*\*2012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는 약15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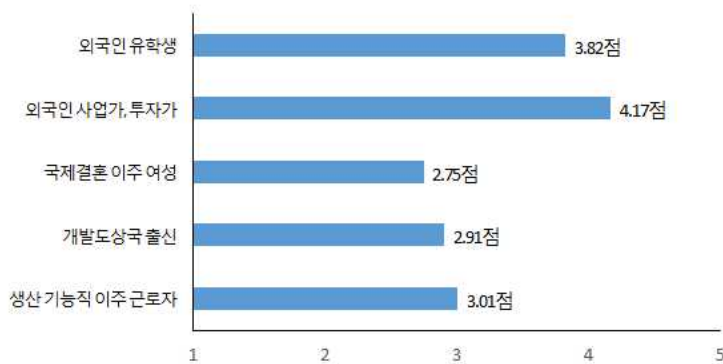
[그림3]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생산증대 효과



<표1>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내국인 범죄율 (2011년)

구분	외국인 체류자	내국인
전체 인구	1,395,077명	47,666,667명
피의자 수	26,915명	1,879,748명
비율	1.9%	3.9%

[그림4] 이주 외국인 증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2009년)



매우 부정적(1점), 부정적(2점), 보통(3점), 긍정적(4점), 매우 긍정적(5점)

<표2> 외국인 유입 결과 내용에 대한 한국 국민의 동의 비율 (2012년)

내용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일반 거주 지역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용이	41.9%	36.4%
문화적 다양화 및 개방성 증가	71.1%	50.3%
우수 인재 수용으로 인한 국가 발전 기여	50.3%	43.7%
노동 시장 기여	64.6%	53.1%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범죄 증가	42.1%	28.2%

\*2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중 거주 지역(안산 등 7개 산업 도시)과 일반 거주 지역(24개 시, 군)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표3> 총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연도	총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2010년	-
2020년	39.6 만 명
2030년	186.4 만 명
2040년	488.4 만 명
2050년	972.2 만 명

\*2010년부터 국내 인구가 순감소세로 접어든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 인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인구 감소를 방지해야 함.

<표4>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008년)

이유	응답 비율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	58.1%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7.4%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11.5%
기타	13.0%